

# 은성수 “가상자산, 불법자금에 쓰이면 1차 책임은 은행”

(금융위원장)

“은행, 실명계좌 개설은 것 당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화  
“씨티銀, 소매금융 통매각 희망”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가상자산의 자금세탁이나 불법테러 자금으로 쓰일 경우 1차 책임은 은행에 있다. 은행들이 가상자산거래소의 실명계좌 발급계약 체결을 꺼려하곤 하는데, 그렇다면 가상자산거래소는 어떤 은행에서 실명계좌를 받아야 하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은행들이 가상자산거래소의 실명계좌 발급 계약 체결을 꺼려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가상자산거래소는 어떤 은행에서 실명계좌를 받아야 하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오는 9월 25일까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

률(특정금융거래법)시행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의무화 했다. 특정 금융거래법은 ▲은행 실명계좌 발급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임원의 범죄사실 없을 것 등의 기준절차를

무조건 갖춰야 한다. 은 위원장은 “은행들은 현재 자금이 자금세탁이나 불법테러자금으로 쓰이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1000만원 이상 거래 시에 FIU에 신고하는 의무를 갖

고 있다”며 “불법자금으로 쓰일 수 있는 가상자산거래소의 계좌발급에 신중한 것을 두고 금융당국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또 은행들이 가상자산거래소의 피해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 실명계좌를 발급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충분히 피해를 감당할 수 있다면 (실명계좌) 받아주고, 괜히 잘못했다가 이익 몇푼에 쓰러지겠다 싶으면 못받아 주는 것”이라며 “엄마가 딸이름으로 실명계좌를 하는 경우도 패널티를 부과하는 시대에 불법자금으로 이용될 수 있는 가상자산거래소 실명계좌에 은행들이 겁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은 위원장은 씨티은행의 소매금융(소비자금융) 매각과 관련해 통매각을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씨티그룹은 지난 4월 14일 한국을 포함한 13개국의 소매금융을 철수한

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씨티은행지부 직원들은 고용안정을 위해 통매각을 희망한다는 입장이지만, 인수 의향자는 감당해야 할 고용비용 부담을 이유로 분리매각을 희망하고 있다.

은 위원장은 “아시다시피 통매각 M&A의 경우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언급을 하거나 개입을 하는 것은 조심성이 있지만, 가능하다면 통매각을 통해서 고용이 유지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은 위원장은 비밀유지협약을 맺어 계약이 진행 중인 만큼 인수의향자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피했다. 은 위원장은 “매각 관련”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알 수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게 현재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돕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 카뱅 임직원 1000명 돌파... 업계 최대 규모

출범 4년만에 3배 이상 증가  
전체 직원 83%, 40세 이하

카카오뱅크는 전체 임직원 수가 1000명을 넘어섰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17년 7월 출범 당시 300여명에서 4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했다.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중 최대 규모다.

지난달 말 기준 임직원 수는 1023명이다. 카카오뱅크가 출범한 해에는 390명, 2018년에는 603명, 2019년에는 786명, 2020년에는 913명을 넘어섰다. 올해 상반기만 100명 이상의 직원을 추가로 채용했다.

카카오뱅크는 금융과 IT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과 성장이 함께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9년에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일자리 으뜸기업’, 지난해 12월 일자리위원회가 수여하는 ‘대한민국 일자리 유공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카카오뱅크는 열린 채용을 통해 인재를 확보하고, 차별화된 경쟁력을 구축해 성장을 이어왔다. 카카오뱅크는 이



카카오뱅크 임직원들이 판교 오피스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 /카카오뱅크

름과 직급 대신 영어 이름을 부르며, 대표실 없이 대표와 직원이 같은 공간에서 업무를 하는 등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갖고 있다. 올해 3월 말 기준 전체 직원수의 83%가 40세 이하의 젊은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임직원 중 약 40%는 IT 전문인력이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018년부터 경력 개발자 공개채용을 진행하고 있으며, 개발자로서 성장 가능성과 수평문화로 매년 모집에 많은 지원자가 몰리는 것으로 유명하다.

카카오뱅크는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를

를 갖추고 있다. 유연한 출퇴근 시간을 기본으로 하는 유연근무제를 운영 중이며, 본인 및 가족의 의료비와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등 직원의 균형 있는 삶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3년간 500억원을 투자해 우수 인력 채용을 확대하고, 차별화된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IT전문 인력 뿐만 아니라 고객서비스, 리스크, 비즈니스, 서비스 등 다양한 직무 분야 인력도 꾸준히 채용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 한화생명, 누구나 필요한 수술비건강보험

유병자 수술보험 최초 특약 세분화

한화생명이 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신상품을 선보였다.

한화생명은 유병자 수술보험 최초로 수술 관련 특약을 세분화한 ‘한화생명 간판가입 누구나필요한 수술비건강보험(갱)’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상품은 별도의 특약 없이 주계약 만으로도 재해사망과 3대 질병(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으로 인한 수술을 보장한다.

36종의 특약도 마련해 고객이 원하는 보장과 수술방법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간판가입 수술비 건강보험은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재해사망보험금 1000만원과 3대 질병 관련 수술자금으로 가입기간 1년 이상 시 500만원, 1년 미만 시 250만원을 지급한다. 3대 질병 관할수술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했거나 50% 이상 재해장애 시 고객은 보험료 납입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주계약 외에도 주요 질병 부위인 암, 뇌혈관, 심장, 간, 폐, 신장, 췌장 등의 다양한 수술특약도 가능하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

## NH농협

### 금융권 첫 백신 인센티브

NH농협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오는 10월 말까지 ‘빠른 일상 회복! NH 응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2가지 테마로 진행된다. 농협 인터넷뱅킹과 NH스마트뱅킹, 올원뱅크에서 이벤트 대상 디지털 상품 3종 중 1종 이상 가입하고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을 대상으로 4개월 동안 매일 당첨자를 추첨한다. 이벤트 I 은 백신접종에 동참하려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안상미 기자

## 롯데손보, 새 CIO에 송준용 전 부사장

(엔케이맥스)

자산운용 업무 총괄

롯데손보는 신임 최고투자책임자(CIO)에 송준용 전 엔케이맥스 부사장(사진)을 선임했다고 1일 밝혔다. 송준용 CIO는 자산운용총괄장(전무)으로 롯데손보의 자산운용 업무를 총괄한다.

송준용 CIO는 고려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한 국내외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자산운용 전문가다. 일은증권(현 상상증권),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 블랙스톤그룹, UBS를 거쳐 2017년부터 2년 간 동양생명의 CIO를 역임했다.

롯데손보는 송준용 CIO 선임에 계기로 중장기 자산운용배분전략을 재정립하고, 2023년 IFRS17 도입에 발맞춘 안정적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편성에 나선



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임 CIO의 주도로 기존 투자 자산에 대한 리밸런싱(Relbalancing) 작업에 착수한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새로 선임된 송준용 CIO는 국내외에서 쌓아온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자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이끌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송준용 CIO는 “롯데손보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안전자산 위주로 재편하고 인적자원과 운용시스템 역시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라며 “중소형 손해보험사 자산운용의 벤치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지연 기자

## “올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3.1% 증가 예상”

‘2021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보고서

올해 보험산업의 수입보험료가 3.1%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1일 보험연구원은 ‘2021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국내경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신속한 보급으로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코로나19 종식 시점 및 금리 인상 등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일별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400~700명대로 2020년 코로나19 확산 초기보다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국고채 금리도 미국 채 금리 상승 및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보험산업에 영향이 큰 장기금리를 중심으로 크게 상승했다.

올해 보험산업 전체 수입(원수)보험료는 신계약 초회보험료가 2.1%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3.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계속보험료의

지속적인 유입에 따라다.

생명보험산업의 초회보험료는 퇴직연금의 증가에 힘입어 전년 대비 1.7%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시납을 중심으로 크게 성장했던 저축성보험의 감소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손해보험산업은 장기손보와 일반손보, 퇴직연금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4.8% 상승한 초회보험료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생보산업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보장성보험은 계속보험료의 꾸준한 확대에 의해 전년 대비 3.6% 성장할 전망이다. 퇴직연금 수입보험료도 개인형퇴직연금(IRP) 시장 확대, DB형 사외적립비율 확대(90%→100%) 등으로 15.3% 증가가 예상된다.

다만 일반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도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 대비 6.5% 줄어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백지연 기자